

17호포

강정호, 99마일 직구 강타... 팀 8연패 탈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결승 홈런을 포함한 4타수 3안타를 치고 2타점을 올리며 팀의 4-3 승리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강정호가 8회말 3-3 동점에서 시즌 17호 결승 홈런을 때린 뒤 홈으로 들어오며 기뻐하는 모습. /연합뉴스

‘양’손 무거운데... 마음도 무겁다



양현종, 초반 부진·불운 겹쳐 3년 연속 15승 불발 오늘 NC전서 9승 도전 “4강 싸움에 책임감 목직”



‘호랑이 군단’의 에이스 양현종이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KIA 양현종에게 2016시즌은 인내의 시간이다. 올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양현종은 KBO 리그 사상 첫 좌완 3년 연속 15승을 겨냥했었다.

2014년 4.25의 평균자책점으로 16승 8패를 기록했던 양현종은 지난 시즌에도 15승 6패로 2년 연속 15승 고지를 넘었다. 여기에 평균자책점도 2.44까지 끌어내리면서 평균자책점 1위 자리까지 차지했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초반 부진과 불운이 겹치면서 15승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올 시즌 26경기에 등판한 양현종은 3.57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10패를 기록하고 있다. 3년 연속 10승이 양현종의 현실적인 목표다. 올 시즌 승보다 먼저 언급했던 200이

닝에는 28.2이닝 부족하다. 양현종은 앞선 26경기에서 171.1이닝을 소화하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자신의 역대 최다이닝(184.1) 경신을 앞두고 있다.

상대의 막강한 투수들과 만나야 하는 게 ‘에이스의 숙명’이라고는 해도 유난히 풀리지 않는 시즌이다.

양현종이 승리 카운트를 시작한 것은 개막 후 두 달째인 5월13일이다. 8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양현종은 이날 한화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어렵게 4-2경기의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2승도 쉽지 않았다. 첫 승 후 6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두 번째 승리를 챙기는 등 연패 스토리로 활약을 했던 지난해와는 다른 시즌을 보냈다.

올 시즌 3차례 완투까지 했지만 양현종은 이 세 경기에서 두 번의 완투패를 기록해야 했다.

설상가상 야수진들이 잇단 실책을 하면서 양현종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양현종만 마운드에 서면 침묵하는 타선도 답답했다. 양현종이 등판한 26경기에서 홈에 들어온 KIA의 주자는 평균 3.77명에 그쳤다. 그러나 양현종 등판 전날과 다음날 경기의 팀 평균득점은 각각 6.9점과 6.1점이다.

최근에는 하늘도 양현종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8월17일 kt전에서 2이닝을 소화한 뒤 비가 내리면서 노계임이 선언됐다. 날짜를 미뤄 8월20일 LG전에 다시 출격했지만 이번에는 우천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이후 두 번의 등판에서 연달아 비가 내리면서 하루 더 기다려야 마운드에 오르는 등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현종은 9일 NC전 선발로 시즌 9승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마음 편한 상황에서의 등판은 아니다. 4강 독주를 앞에 두고 SK에 일격을 당하면서 마음 급해진 선수단, 앞선 맞대결에서 NC 타선에 밀리지 않는 파워싸움을 벌였던 타선에서는 나지완이 요구리 통증으로 빠졌다.

“인내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양현종이 에이스의 책임감으로 승리를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반바지 차림 훈련나온 안치홍 “적응이 안돼서”

덕아웃 T 특특

▲야구하기 싫나봐=짜증을 잃고 배회하던 ‘캡틴’이다. 8일 NC전에 앞서 진행된 훈련. 타격 훈련을 끝낸 이범호가 글러브를 들고 그라운드로 나왔다. 그러나 이범호는 “캐치볼 할 상대가 없다”며 한참 자리를 빙빙 돌았다. 이범호의 캐치볼 전담 파트너는 친구 김주찬이다. 늘 짝을 맞춰 훈련을 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날 김주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파트너 어디 갔느냐는 질문에 “야구 하기 싫나봐. 피곤한 기분이”라고 웃음을 보인 이범호는 타격 훈련을 끝낸 김주찬을 캐치볼 파트너로 선택했다.

▲감으로 뺏았어요=전날 문학 구장에서 슈퍼 캐치볼 선보인 외야수 김호령은 비결은 ‘감’이었다. 김호령은 전날 무사 만무의 위기에서 우중간으로 향한 박정권의 큼직한 타구를 잡아냈다. 싹쓸이 2루타까지 가능했던 타구였지만 김호령의 호수비에 박정권의 타구는 희생플라이가 됐다. 스타트를 늦추지 않으면서 아웃이 되기도 했다. 김호령은 “잡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다. 빨리 뛰다 보니 시야가 흔들려서 잘

안보였다. 마지막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감으로 손을 뺐었는데 공이 들어왔다”고 전날 수비에 대해 설명했다.

▲어색해요=그라운드에는 적응을 끝냈지만 덕아웃에는 완벽하게 적응을 하지 못한 안치홍이다. 훈련 시간에 공을 모으기 위해 덕아웃으로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던 안치홍.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다. KIA는 김기태 감독이 부담한 뒤 훈련 시간에도 유니폼 바지를 챙겨 입고 연습을 한다. 경기장에서의 예의를 강조한 김 감독의 철학이다. 입대 전처럼 반바지를 입고 나왔던 안치홍은 백용환의 이야기에 “아직 어색하다. 뭘 또 하면 안 되냐”고 웃으면서 바지를 갈아입고 나왔다.

▲특별 선곡입니다=KIA 훈련 시간이면 챔피언스필드에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흥겹게 훈련을 하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8일 훈련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시 작은 구창모의 ‘희나리’였다. 낮선 음악 속에서 진행된 훈련. KIA 관계자는 “오늘 경기에 대비해서 구창모 메들리를 준비했다”고 웃었다. 이날 NC의 선발은 구창모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년 재할 전병두 끝내 은퇴 KIA·SK 등서 좌완 활약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투수 전병두(32)가 은퇴한다. SK는 오랜 재할 훈련을 해온 전병두가 은퇴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병두는 2011시즌을 마치고 왼쪽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은 이후 약 5년간 재할에 매진했다. 그는 올해 7월 9일 화성 히어로즈 3군과의 연습 경기에서 1이닝 5타자 1피안타 1볼넷 1실점(비자책) 2삼진을 기록해 재기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SK는 전병두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구단은 정규시즌 최종전인 10월 8일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에서 전병두를 한 차례 등판시키는 은퇴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2003년 두산에 입단한 전병두는 2005년 KIA를 거쳐 2008년부터 SK 유니폼을 입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시즌 동안 280경기에 출장해 29승 29패 16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3.86의 수준급 성적을 기록했으나 끝내 재할에 성공하지 못했다.

전병두는 “오랫동안 응원해주신 팬들과 동료, 코치진, 구단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재할을 하면서 1군 마운드에서 한번 던지는 것이 소원이었다. 감독님과 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